



Q&A

KNTA에 물어보세요

question 01 약 복용하지 한 달째 되어 약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촬영 결과 사진 상으로는 더 악화됐다더군요. 약 복용 빠지지 않고 꾸준히 했는데도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약 복용 중에 지켜야 하거나 피해야 할 음식이나 행동이 있나요? 나아졌을거라 생각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고 하니 맘이 안 좋네요. 이제 한달 복용했지만 걱정이 정해서 글 남깁니다.

폐결핵을 치료하는 도중에 치료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반응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나 흉부 X-선 소견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처방을 변경할 필요 없이 계속 치료를 받다 보면 대부분 다시 호전되게 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 치료의 실패나 다른 질환의 동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추후 다시 흉부 X-선 검사 및 객담 검사 등을 하여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02 미국에 거주하는 32개월 아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BCG를 맞았습니다. TB테스트를 받았는데 22mm가 나와서 X-ray촬영까지 했으나 아무 증상없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을 9개월간 복용 하라고 합니다. 우선 나이가 너무 어린데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약을 복용하면 간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꼭 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지금이 아닌 좀더 커서 (초등학교 입학 후) 복용해도 되나요?

가족이나 주변의 활동성 폐결핵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핵 피부반응검사서 강하게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잠복결핵 감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잠복결핵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에서 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담당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 치료를 함으로써 폐결핵 뿐만 아니라 결핵성 뇌막염, 속립성 결핵 등의 예방도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question 03 결핵 접촉자 검진에서 엑스레이랑 피검사 했는데 양성반응 나왔어요. 제 현재 나이가 41세인데요. 35세 이상에서는 예방약을 안 먹는다고 발병하면 약 먹자고 하는데, 35세 미만자만 잠복결핵 시 예방약 먹는 게 맞나요? 3개월 후 엑스레이 검사 다시 하자고만 하는데, 면역력 약하되거나 활동성으로 가면 약 먹자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일반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 3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치료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35세 이상이라도 HIV감염자(에이즈 감염), 당뇨병 환자, 만성 신부전 환자, 면역억제제 계통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치료를 하게 되며, 과거부터 흉부 X-선 소견 상 비활동성의 병변이 보였을 경우(현재 활동성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잠복결핵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활동성 폐결핵일 경우에는 정식으로 다제처방 결핵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04

1차 치료 3개월째 약제내성검사에서 다제내성결핵으로 판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약도 하루도 빠짐 없이 잘 복용하고 증상도 많이 호전되어 안심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2차 치료는 완치가 어렵다던데 꼭 완치할 수 있나요? 또 전염성은 2차 약 복용 후 얼마 후부터 안심할 수 있는지? 며칠 전 가래검사에선 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병원에선 전염성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대요. 2년이란 시간동안 약복용과 주사치료 등 겁나고 무섭지만 완치할 겁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폐결핵 치료 도중에 다제내성으로 확인되신 것 같은데, 다제내성 결핵이라 하더라도 2차약제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잘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힘내서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객담검사에서 균음성이므로 현재로는 전염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전염성 소실 시기는 환자마다 다르므로 매달 객담검사(배양 포함)를 해서 균음전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05

장결핵 환자입니다. 집에 어린유아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데, 혹시 장결핵도 전염이 되나요? 대변이나 소변에 결핵균이 있는지, 화장실을 따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활동성 폐결핵이 없이 장결핵만 있으면 호흡기로나 대변에 의한 전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장결핵 환자의 대변에 결핵균이 검출될 수도 있지만 환자가 약물치료를 잘 받기 시작하면 균이 배출되지 않게 되고, 또한 환자가 변을 본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화장실을 잘 환기시키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유아라서 염려가 된다면 치료초기에만 별도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06

임신 9개월 차의 임산부입니다. 6년 전 결핵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완치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핵을 앓았다는 병력이 분만과정(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치된 상태에서도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폐결핵으로 완치를 잘 하였으면 임신, 출산(분만), 수유 등의 과정에서 대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심폐기능 등이 정상일 경우), 일부 임산부에서는 과거에 앓은 결핵이 악화되어 재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임신 중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꼭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